

常用癌 治療藥物中 毒性藥物에 關한 文獻的 考察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內科學教室

白承學 · 趙鍾寬

I. 緒論

癌은 人體가 病理的으로 갖는 非正常的인 細胞의 增殖으로 인해 正常細胞가 잠식되는 疾患으로 分布가 全身의이며 難治病에 屬한다. 그동안 癌의 治療는 西洋醫學의 專有物로 認識되어 化學療法, 放射線同位元素療法, 外科의 手術療法 등이 癌治療의 대부분을 차지해 왔고, 그 外에 韓方療法이나 民間療法 등이 癌治療에 間歇的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韓醫學의 여러 古典은 癌을 포함하는 概念인 積聚¹⁾²⁾³⁾의 藥物治療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⁴⁾⁵⁾ 病의 治療에 관하여 《靈樞·百病始生篇》에서는 “常察其所痛 以知其病有餘不足 可補可瀉無逆天時”라하여 病의 虛實을 가려 自然的인 人體生理를 거스르지 않는 範圍에서 補法이나 瀉法을 써야한다는 大綱을 定하였고⁶⁾, 또한 《醫學入門》⁷⁾에서는 “破積用毒藥 衰其大半而止”라 하여 積聚의 治療에 破積의 藥效를 가진 毒性藥物을 正氣를 傷하지 않는 範圍에서 쓸 수 있음을 提示하고 있다.

이런 醫書들은 “正虛邪實”이 積聚의 原因이 된다는 것에 立脚하여 “扶正祛邪”를 原則으로 하고 있지만 實際 臨床에 있어서는 養生醫學이라는 長點만을 내세워 소홀히 取扱하는 事例가 있을 수 있고 또한 攻積과 破積의 時期를 놓쳐 治療에 실패하는 境遇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抗癌效果를 지닌 藥物이 毒性을 갖고 있어 人體의 正氣를 損傷시킬 수 있다는 念慮와 毒性藥物에 대한 理解不足때문에, 正常細胞 사이에 寄生하며 增殖하는 完固한 癌細胞의 成長抑制 및 破積에 藥效와 時期가 適切한 抗癌藥物을 毒性이 있다는 이유로 그 사용을 回避했기 때문에 생각된다.

따라서, 論者는 文獻考察을 通하여 抗癌效果를 지닌 藥物중 毒性을 가진 것을 찾아 破積, 攻積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意圖에서 本論文을 作成하였다.

II. 本論

積聚에 有效한 藥物中 毒性을 지닌 것을 《本草綱目》⁸⁾, 《本草求真》⁹⁾, 《申氏本草學》¹⁰⁾, 《本草學》¹¹⁾, 《中藥大辭典》¹²⁾, 《抗癌本草》¹³⁾, 《治癌中藥及處方》¹⁴⁾ 등의 書籍에서 찾아보면 大略 六十餘個의 藥物이 되는데,

- 2) 楊醫亞 主編:中醫學問答, p.64
- 3) 上海中醫學院:中醫內科學,p.90
- 4) 李延:醫學入門,p.389
- 5) 朱丹溪:丹溪心法,卷68,p.1
- 6) 圖書集成, 醫部全錄:vol.9 pp.7549-75732.
- 7) 李延:醫學入門,p.389
- 8) 李時珍 著:圖解本草綱目, 臺北, 文光圖書公司, 1982.
- 9) 黃宮繡 編:本草求真, 臺灣, 宏業書局有限公司
- 10) 申吉求 著:申氏本草學, 서울, 壽文社
- 11) 李尙仁 著:本草學, 서울, 修善院
- 12) 新文豐出版公司 編輯:中藥大辭典, 臺灣
- 13) 常敏毅 編著:抗癌本草, 中國, 湖南科學技術出版社
- 14) 葉銘洪 編著:治癌中藥及處方, 臺灣, 垂聯出版社

1) 全國韓醫大 肝系內科學教授 共著:肝系內科學, p.88

分類上 藥物의 起源, 毒性의 強弱으로 나누었으며, 아울러 氣味와 歸經, 主治面을 포함하였다.

1. 藥物의 起源에 의한 分類

①植物性 藥物:甘遂, 苦豆子(西豆根), 急性子, 瓜蒂, 蒟蒻, 狗舌草, 莨菪, 大黃, 大麻葉, 大蒜, 冬葵子, 馬錢子, 毛茛, 望江南, 半夏, 白屈菜, 山慈姑, 了歌王, 石蒜, 相思子, 常山, 商陸, 垂盆草, 續隨子, 蛇莓, 芫花, 禹白附, 野菊花, 魚腥草, 皂莢, 天南星, 蒼耳子, 澤漆(五鳳草), 八角蓮, 巴豆, 杏仁, 黑丑

②動物性 藥物:蜈蚣, 狗寶, 蟻蚱, 露蜂房, 馬尿, 斑貓, 壁虎, 蛇退, 蜥蜴, 蟾酥, 蜈蚣, 水蛭, 全蟲, 穿山甲, 蝨蟲, 蟻蚱

③礦物性 藥物:雄黃, 砒石(信石), 礪砂, 芒硝

2. 毒性에 의한 分類

이들 抗癌藥物의 毒性은 그 정도에 따라 大毒, 有毒, 小毒(微毒)으로 나눌 수 있는데, 猛毒성을 함유한 것은 주로 礦物性 藥材였고, 몇 개의 動物性 藥材를 포함한 植物性 藥材가 二十餘種 미만으로, 微弱한 毒性을 함유하였으며, 나머지는 보통의 毒性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①小毒性 藥物:狗寶, 狗舌草, 急性子, 挑耳七, 壁虎, 山慈姑, 相思子, 垂盆草, 芫花, 野菊, 雄黃, 魚腥草, 蝸牛, 杏仁

②有毒性 藥物:甘遂, 苦豆子(西豆根), 瓜蒂, 蒟蒻, 莨菪, 大黃, 大蒜, 大麻葉, 冬葵子, 馬錢子, 毛茛, 望江南, 半夏, 白屈菜, 常山, 商陸, 續隨子, 蛇莓, 禹白附, 皂莢, 天南星, 蒼耳子, 澤漆(五鳳草), 八角蓮, 蜈蚣, 蟻蚱, 露蜂房, 馬尿, 斑貓, 壁虎, 水蛭, 蛇退, 석이, 蟾酥, 蜈蚣, 全蟲, 穿山甲, 蝨蟲, 黑丑.

③大毒性 藥物:砒石, 礪砂, 巴豆

3. 毒性 治積藥의 氣味

氣味論은 藥品의 性能 곧 藥理作用과 直結되는 韓醫學的인 理論體系로 藥物의 基本學說

이다¹⁵⁾. 藥物의 氣와 味는 그 藥物의 歸經, 主治, 效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氣와 味로써 그 藥物의 屬性을 類推할 수 있다.

1) 四氣에 의한 分類

氣味論에서 言及되는 氣는 人體의 溫度에 영향을 미치는 藥物의 作用을 말하는 것으로 溫, 大溫, 熱, 大熱, 寒, 大寒, 微寒(涼) 등으로 나누는데¹⁶⁾, 間或은 寒, 熱 어느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平이 있다. 이들 寒, 熱, 溫, 涼의 四氣에 依據하여 毒性 治積藥을 나누어 본 결과, 寒藥과 溫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熱藥과 涼藥은 그 분포가 적었다. 본 分類는 《本草學》에 記錄된 氣味를 爲主로 삼았다.

①寒藥:大黃, 馬錢子, 甘遂, 白屈菜, 瓜蒂, 斑貓, 蒟蒻, 蜈蚣, 壁虎, 馬尿, 穿山甲, 蝸牛, 蛇莓, 狗舌草, 商陸, 垂盆草, 蟻蚱, 蝨蟲, 黑丑, 芒硝.

②熱藥:巴豆, 天南星, 砒石, 礪砂

③溫藥:八角蓮, 大麻藥, 毛茛, 半夏, 石蒜, 芫花, 急性子, 禹白附, 挑耳七, 大蒜, 魚腥草, 續隨子.

④涼藥:澤漆, 望江南, 野菊花.

⑤平藥:水蛭, 蛇退, 露蜂房, 蟾皮, 牛黃, 狗寶, 冬葵子

일반적으로 寒性藥物은 沈藏 蟄居하는 氣에 따라 冬에 應하여 殺伐을 爲主로 하며 沈降, 鎮靜, 消炎의 作用을 하며, 溫性藥物은 萬物이 始生하는 氣에 따라 春에 應하여 發育을 爲主로 하며, 熱藥의 程度보다 弱하다.¹⁷⁾

積聚의 現代의인 性格이 體內에 生成되는 癩疾의인 異常細胞이므로 이들의 蕩滌에는 강한 殺性を 지닌 寒性藥物이 있어야 하고 또한 殺性を 갖고 있어도, 積聚라는 沈降, 累積된 病의 狀態를 撥越시키고 經絡을 疏通시키는 作用을 하는 溫氣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곧 같

15) 李尙仁 著: 本草學, p.39
16) 趙憲泳 著: 通俗韓醫學原論 pp.391-392
17) 李尙仁 上揭書 p.39

은 毒性이지만 寒性藥物은 強勁한 효과를 갖고, 溫性藥物은 비교적 溫柔한 方法으로 積聚에 接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上記한 두가지 효과를 얻기 위해 毒性 治積藥中에 寒,溫性의 藥物이 비교적 많은 數를 차지하는 것 같다.

2) 五味에 의한 分類

人體가 느끼는 味覺은 國家와 民族의인 차이가 있지만, 대개는 酸, 苦, 甘, 辛, 咸 五味로 나눈다.¹⁸⁾ 藥物이 갖는 五味의 作用에 關하여 李¹⁹⁾는 “酸味는 收斂, 苦味는 瀉下, 甘味는 緩和, 辛味는 發散, 咸味는 貯藏,沈降한다.”고 하였으며, 五行에 의한 歸經으로 “酸味는 肝으로 들어가 能히 收斂을 發揮하고, 苦味는 心으로 들어가 能히 燥를 瀉하고, 甘味는 脾로 들어가 能히 緩和케하고, 辛味는 肺로 들어가 能히 潤하여 橫行하며, 咸味는 腎으로 들어가 能히 堅을 軟하게 한다.”고 하였다.

毒性 治積藥의 五味에 의한 分類에서는 苦味와 辛味が 많았고, 그 다음이 咸味와 甘味로 나타났으나, 酸味는 하나도 없었다. 本 分類에서는 《本草學》에 記錄된 氣味를 爲主로 하고, 前書에서 漏落된 藥物은 그 拔萃文獻을 明示했다. 또한 두가지 이상의 味를 가진 藥物은 主味에 따라 分類하고, 兼味를 ()에 表示하였다.

①苦味:水蛭, 大黃, 馬錢子(甘), 天南星, 甘遂(甘), 白屈菜(辛), 芫花, 急性子, 挑耳七, 萆毒(辛), 望江南, 瓜蒂, 野菊花, 牛黃, 狗舌草, 商陸, 澤漆, 黑丑, 硃砂, 蟲蟲.

②甘味:蒼耳子(苦), 杏仁(苦), 蛇莓, 山慈姑(辛), 垂盆子, 冬葵子.

③辛味:天南星(苦), 蜈蚣, 巴豆(苦), 全蟲, 雄黃(苦), 常山(苦), 八角蓮, 毛茛, 石蒜, 相思子, 禹白附, 斑貓, 菟藟, 魚腥草, 續隨子.

④咸味:芒硝(辛,苦), 蜥蜴(甘), 穿山甲, 螻蛄, 蛇退, 蝸牛, 壁虎, 土鼈蟲(麤蟲).

毒性 治毒藥中 辛味와 苦味の 藥物이 많은데, 먼저 辛味の 效果를 《本草學》에 依據하여 살펴보면 “辛味性藥物을 服用하면 呼氣가 많아지며 發散을 主管한다. 그러므로 辛味를 가진 藥物의 作用은 主로 散結, 發散, 驅風, 橫行, 利竅, 潤燥, 健胃등의 作用을 가진다.” 辛味の 發散作用에는 溫氣의 協助가 必要한데, 大概是 辛味를 가진 藥이 溫熱性을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李는 火味(苦味)를 說明함에 있어 “苦味는 瀉下作用을 하니, 下熱, 沈靜, 降泄作用을 하므로 …… 그러므로 堅脆, 燥潤, 直行, 降下, 湧泄, 去垢, 解毒, 消腫, 開導, 養血, 補陰의 役割을 한다.” 고하여 治療藥 중 苦味를 含有한 藥物이 積聚에 대하여 보다 強한 效果를 나타낼 수 있게 類推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苦味の 藥物이 대개는 寒性을 지니므로, 藥物의 四氣에 의한 分類中 寒性藥物과 그 藥性이 類似하다고 할 수 있다.

積聚는 硬結된 積塊이므로 硬結을 풀어 軟하게 하여 治療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毒性 治積藥 중에 咸味와 甘味가 적지않게 分布하여 咸味로써 軟堅시키고, 甘味로써 緩和시키되 收斂하는 酸味를 가진 藥이 없는 것은 當然하다 할 수 있다. 實際로 “酸味는 氣의 發散을 抑制하고 收斂, 收濕, 斂散, 斂熱, 活血, 固表시킬 때 使用되며, 甘味는 緊張된 筋肉의 活動을 弛緩시키고, 緩和 解毒하는 作用이 있으며, 咸味는 단단하고 뻣뻣한 것을 柔軟하게 하는 作用이 있으므로 咸味를 가진 藥의 作用은 主로 軟結, 化積, 沈下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積聚에 治積藥을 쓸때 藥의 氣味를 治療하고자하는 目的에 附合시켜 즉 甘咸으로써 積을 軟堅, 緩和시키고 苦辛으로써 發散, 瀉下시키거나 或은 먼저 溫熱藥으로 積聚의 諸鬱을 行滯 疏通시킨 후 寒涼藥으로 瀉下 蕩滌시키는 것등으로 活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8) 上揭書: p.40

19) 李正來 著: 修正 東洋醫學原理. p.162

4. 毒性 治積藥의 歸經

藥物的 歸經은 그 歸屬臟腑의 生理, 病理的인 特性에 聯關되어 藥의 效能이 說明된다. 그러나 毒性 治積藥의 歸經은 효과가 發現되는 臟腑인 동시에 毒性에 副作用이 發生하는 臟腑로서의 兩面性을 지닌다.

各 藥物的 歸經은 다음과 같다.

①肝:大戟, 蠱蟲, 白屈菜, 蛇退, 常山, 蜈蚣, 雄黃, 全蟲, 蟾蜍, 皂莢, 天南星, 穿山甲

膽:巴豆

②心:半夏, 常山

小腸:大黃, 冬葵子, 巴豆

③脾:甘遂, 大戟, 大蒜, 大黃, 大麻葉, 半夏, 白屈菜, 砒石, 蛇退, 常山, 硃砂, 芫花, 天南星, 杏仁

胃:瓜蒂, 蠅蚋, 大戟, 大麻葉, 大蒜, 大黃, 半夏, 白屈菜, 蟾酥, 續隨子, 枳實, 硃砂, 雄黃, 皂莢, 巴豆, 穿山甲

④肺:甘遂, 瓜蒂, 大戟, 大麻葉, 半夏, 山慈姑, 常山, 續隨子, 芫花, 天南星, 皂莢, 穿山甲, 巴豆, 杏仁

大腸:蠅蚋, 大麻葉, 大黃, 冬葵子, 半夏, 枳實, 皂莢, 穿山甲, 巴豆, 杏仁

⑤腎:甘遂, 急性子, 大戟, 芫花

膀胱:甘遂, 大戟, 大黃, 冬葵子, 續隨子, 芫花

藥物を 歸經別로 分類한 결과 脾胃經에 歸屬된 藥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肝經, 肺, 大腸經 순서로 많았다. 이는 毒性 治積藥이 脾胃를 비롯한 여러 臟腑에 작용하여 治積效果를 나타내지만 正氣가 實하지 못할 때 誤用하면 脾胃를 損傷시키고, 肝毒성을 誘發하며 後天之本인 脾와 함께 正氣形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肺에도 惡影響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5. 藥理的인 分類

毒性 治積藥을 각각의 藥理的인 屬性에 의

하여 나누어 보았는데, 《申氏本草學》의 分類를 빌어 大別하면 發散藥, 催吐藥, 瀉下藥, 活血通絡, 破血劑, 清熱藥으로 나뉘고, 여기에서 漏落된 藥物은 《本草學》의 分類를 引用하였다.

①發散藥

發散風濕藥:全蟲, 蜈蚣, 蟾酥

②催吐藥

催吐 涎藥:瓜蒂, 常山

③瀉下藥

瀉下熱積藥:大黃, 皂莢

瀉下寒積藥:巴豆, 硃砂

瀉下水飲藥:甘遂, 大戟, 商陸, 蠅蚋, 芫花

④活血通絡藥,破血祛瘀藥

活血通絡藥:穿山甲

破血祛瘀藥:水蛭, 蠱蟲, 蟾蜍

⑤清熱藥

清熱解毒藥:山慈姑

⑥化痰藥

溫化寒痰藥:半夏, 天南星

⑦殺蟲藥:露蜂房, 雄黃

藥物的 藥理的인 分類에서는 補氣, 補血 및 收斂藥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發散, 瀉下, 化痰, 行血, 清熱, 殺蟲등 積聚의 中間要因이 되는 氣, 血, 痰, 食, 濕, 熱 등의 疏通 및 除去에 주로 作用하는 藥物이 많았다.

일찌기 丹溪는 “凡積病不可用下藥 從損眞氣 病亦不退 常用消積 使之融和則 自消除根矣”라 하여 積聚를 治療할 때 下積藥의 使用을 警戒하였는데, 人體가 正氣의 作用으로 살아가므로 正氣의 重要性에 立脚해 보면, 上記한 丹溪의 說은 妥當性을 지닌다.

그러나, 古典에 記錄된 積聚類중 現代의 癌에 해당하는 疾患은 그 性格이 完固하고 특히 惡性인 境遇에는 그 成長이 迅速하므로 治療도 그에 준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에 사용하는 藥物은 그 性格이 功伐, 破積, 下積의 效能

을 지니고, 주로 脾胃藥에 들어가는데 朱가 “凡攻擊之藥 有病則病受之 無病則胃氣受傷”이라하여 胃氣의 損傷을 念慮하듯이 攻積, 破積藥의 誤用은 傷人하므로 毒性 治積藥의 使用은 胃氣의 有無를 살피, 胃氣가 健實하면 積聚의 折半이 衰할 정도로 投藥하고, 胃氣가 虛弱하면 脾胃를 輔佐하는 藥을 兼用하는 治療를 할 수 있겠다.

毒性 治積藥을 投與하고자 하는 積聚證의 病理의인 性格에 따라 四氣와 五味, 歸經의 分類를 거쳐 使用하면, 좀 더 緻密한 治療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藥物의 氣味가 苦寒과 辛溫으로 大別되므로 患者의 陰,陽을 가려 投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積聚 治療藥中 酸味의 藥物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積聚患者의 食事에서 酸味의 飲食物을 禁止시키는 것도 有效性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I. 結 論

積聚治療藥중 毒性을 지닌 藥物을 本草學의 으로 分類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藥物의 기원에 의한 分類에서는 植物性 藥物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動物性, 礦物性 藥物로 나타났다.

2. 毒性에 의한 分類에서 礦物性 藥物의 毒性이 비교적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植物性, 動物性 藥物은 보통의 毒性을 갖거나, 微弱한 것으로 나타났다.

3. 氣味에 의해 分類한 결과, 苦,寒,辛,熱한 藥物들의 分포가 많았는데 이는 治療時 苦寒의 瀉滌과 辛熱의 消積, 疏通의 作用이 效果의 極大化를 誘導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4. 氣味에 의해 分類한 결과, 收斂效果를 지닌 酸味性 藥物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는 “結者散之”라는 積聚治療의 大綱에 違背되는 斂散效果를 酸味가 含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5. 歸經에 의한 分類에서는 脾胃經과 肺,大腸,肝經에 歸屬되는 藥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藥效가 後天之本人 脾胃 및 脾胃와 함께 氣形成에 관여하는 肺에 作用하고, 氣의 疎泄 및 藏血을 主管하는 肝에 들어가서, 氣血의 形成과 循環에 障礙되는 異物을 除去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誤治時에는 중요한 消化器와 肝毒性이 誘發될 수 있으며, 精氣形成에 重要한 脾胃와 肺에 損傷을 일으킬 수 있음을 나타냈다.

6. 藥理的인 分類에서는 積聚의 先行및 中間要因인 六鬱의 疏通과 外因의 除去에 주로 작용하는 藥物들로 構成되어 있었다.

參考文獻

1. 申佶求 著: 申氏本草學, 서울, 壽文社 1980
2. 李尙仁 著: 本草學, 서울, 修書院 1981
3. 李正來 著: 修正 東洋醫藥原理 1988
4. 全國漢醫大 肝係內科學教授 共著: 肝系內科學 東洋醫學研究員出版部 1989
5. 趙憲泳 著: 通俗韓醫學原論, 圖書出版 眞玄, 1980
6. 康熙帝 主編: 圖書集成 醫部全錄, 中國, 藝文印書館
7. 常敏毅 編著: 抗癌本草, 中國,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6
8. 上海中醫學院: 中醫內科學, 商務印書館 1975
9. 葉銘洪 編: 治癌中醫藥及處方, 臺灣, 華聯出版社
10. 新文豐出版公司 編輯: 中藥大辭典, 臺灣.
11. 沈全魚 外: 積聚, 中國, 山西科學教育出版社 1985
12. 楊醫亞 主編: 中醫學問答,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85
13. 李時珍 著: 圖解本草綱目, 臺北, 文光圖書公司, 1982
14. 李敏 著: 腫瘤病,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82

- 15.李延:醫學入門, 서울, 瀚成社 1984
- 16.朱丹溪:丹溪心法, 臺灣, 五川出版社
- 17.黃宮繡 編:本草求真, 臺灣, 宏業書局有限公司

〈參考〉

1. 蜚蠊

풍뎅이과 곤충인 쇠똥구리(catharsius moiossus)의 乾燥全蟲咸, 寒, 有毒 入胃, 大腸, 肝 定驚, 破瘀, 通便, 攻毒

2. 狗寶

犬科動物 狗(canis familiaris i.)의 胃中結石 甘, 咸, 平, 降逆氣, 開鬱結, 解毒

3. 苦豆子

콩과 苦豆子(sophra alopecuroides i.)의 種子 苦, 寒, 有毒 清熱燥濕, 止痛, 殺蟲

4. 狗舌草

菊花과 狗舌草(senocio integrifolius i.)의 全草 苦, 寒, 少毒 清熱, 利水, 殺蟲

5. 蒟蒻

天南星과 磨干(amorphophyllus rivieri durieu)의 塊

辛, 溫, 有毒 化癆散積, 行瘀消積

6. 急性子(鳳仙子)

微苦溫 消毒 破血 消積 軟堅

7. 蓂毒

가지과 (茄科) 미치광이풀의 뿌리

苦寒 有毒

8. 露蜂房

말벌의 집

甘平有毒 入陽明經 祛風攻毒殺蟲

9. 大蒜

百合科 大蒜(alliumsativum l.)의 뿌리

入脾胃肺 行滯氣 暖脾胃 消徵積 解毒 殺蟲

10. 挑耳七

少葦科 植物인 鬼臼의 根莖

苦溫 治風濕疼痛 胃痛咳嗽 打拍損傷

11. 望江南

荳科 植物 望江南의 莖葉

苦寒 消腫解毒 肅肺 磨肝 和胃

12. 馬尿

白馬(馬)의 尿

辛微寒有毒 主治消渴 破徵堅蒟蒻 男子伏梁積散 婦人積

13. 毛茛

毛茛科(미나리아재비과)의 미나리아재비 (ranunculus japonicus thumb)의 全草辛溫有毒 黃疸 偏頭痛 胃痛 鶴膝風 眼痛 火眼에 씌

14. 寶荳

馬錢科에 屬하는 寶豆나무의 果實

溫, 苦, 有毒 鎮痛, 鎮驚

15. 壁虎

도마뱀과 無璞壁虎(gekko swinhoana gunther)의 乾燥體咸, 寒, 有小毒 祛風, 定驚, 散結, 解毒

16. 蛇莓

장미과 식물인 蛇莓(duchensea indica focke)의 全草甘苦, 寒, 有毒 清熱, 涼血, 消腫, 解毒

17. 相思子

콩과식물 相思子(abrus precatorius l.)의 種子 辛苦, 平, 有毒 通九竅, 治心腹氣, 殺腹臟及皮膚內一切蟲

18. 續隨子

大戟科 續隨子(euphorbia lathyris l.)의 種子

辛, 溫, 有毒 入肺, 胃, 膀胱 蓄水消腫, 破徵殺蟲

19. 석이

과충류 석이目に 屬하는 도마뱀(eumeces laticutatus)의 乾燥體消痰, 散徵

20. 山慈姑

澤瀉科 慈姑의 뿌리

苦甘, 微寒, 有毒 行血, 通淋

21. 石蒜

石蒜과 植物인 石蒜(lycoris radiata herb.)의 뿌리

辛, 溫, 有毒 祛痰, 利尿, 解毒, 催吐

22.魚腥草

三白草科 植物7인 蕺菜(houttuynia co2ata thunb.)의 帶根全草辛, 微溫 有小毒 入肝 肺 清熱解毒 利尿消腫

23.禹白附

天南星과 獨角蓮의 塊根
辛甘 大溫 有毒 入胃 肝

24.蝸牛

달팽이과 달팽이 또는 近種의 乾燥體
咸寒 有小毒 清熱 消腫 解毒

25.礪砂

염화암모니아 결정체
咸苦 溫 大毒 消腫軟堅 破徵散結

26.了歌王

端香科(팔꽃나무과) 了歌王(wikstromeia indica c.a)의 莖葉
苦辛 寒 有毒 清熱解毒 消腫散結 止痛

27.澤漆

大戟의 어린 싹
辛苦 涼 有毒 入大小腸 脾 行水消痰 殺蟲 解毒

28.八角蓮

小蘗科(매자나무과) 八角蓮 (dysosma pleiantha woods)의 根甘辛 有毒 入肺經 清熱解毒 化痰散結 祛瘀消腫